

LG석유화학, 호황 예상되니 사라!

CJ투자증권, 석유화학 재 호황기 돌입 ... 에틸렌 · 벤젠 · BPA 양호

CJ투자증권은 2월15일 LG석유화학에 대해 석유화학 경기사이클 호황기 진입으로 양호한 영업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목표주가를 3만원에서 3만6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희철 애널리스트는 “최근 주가는 3개월간 시장 대비 37% 초과상승하면서 호남석유화학과 함께 화학업종 강세를 견인했다”며 “뿐만 아니라 일본 Mitsui Chemicals, 타이완 FCFC 등 해외 석유화학기업 주가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또 “석유화학기업 주가 강세는 석유화학 경기사이클이 재차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마진이 호전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영업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희철 애널리스트는 “2006년 4/4분기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LG석유화학은 1/4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며 “특히, 에틸렌과 벤젠은 물론 BPA도 주요 수요처인 PC 증설로 수요가 늘어나 마진이 대폭 개선돼 이익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석유화학 경기사이클이 2004년 하반기의 고점에 버금가는 호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주가 이익비율(PER) 목표배수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돼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2/15>